

# 南冥文學 研究의 成果와 課題

—退溪文學과의 比較를 結하여—

鄭 羽 洛\*

## • 目 次 •

1 問題의 提起	4 退溪文學과의 比較
2 研究史 概觀	5 研究의 課題
3 研究 傾向別 檢討	※ 南冥文學 研究論著 目錄

## 1. 問題의 提起

남명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주목받지 못했다 현전하는 南冥(曹植, 1501~1572)의 저술이 많지 않은 점, 조선후기 학문풍토가 남명의 실천적 학풍과 대립된 방향으로 흘러간 점, 남명의 학문을 이단시 하려는 경향이 대두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명의 수제자 鄭仁弘(1535~1623)이 인조반정과 더불어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점<sup>1)</sup>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들어 철학계를 필두로 하여 남명학이 지닌 정신사적 중요성이 학계에 보고되면서 남명이라는 인물과 그를 宗匠으로 한 남명학파에 대한 조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sup>2)</sup> 남명의 사상이 교육적 측면<sup>3)</sup> 혹은 사회·정치적 측면<sup>4)</sup>에서 이해되기도 하고, 남

\* 慶北大學校 講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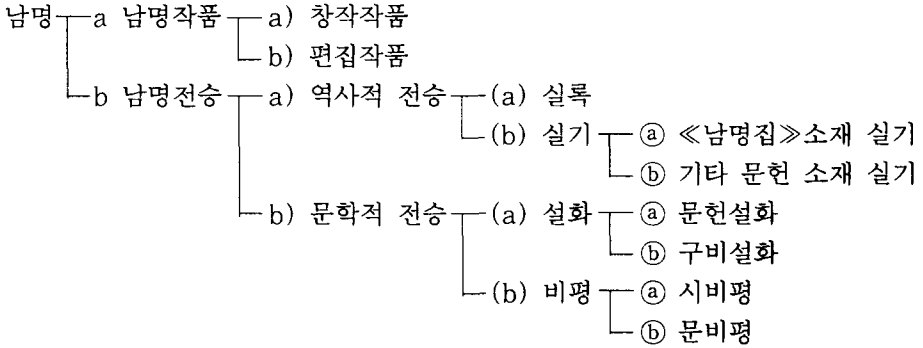
- 1) 吳二煥(1988), <南冥學資料叢刊 解題 緒論>(《南冥學研究論叢》1, 南冥學研究院) 참조 이밖에 金忠烈은 <南冥學을 소의와 오해에서 바로 잡자>(《嶺大文化》17, 嶺南大學校, 1984)에서 조정으로부터의 敬遠, 鄭仁弘의 失脚과 학파간의 대립, 文集 刪訂으로 인한 眞面目의 喪失, 神道碑 是非로 인한 儒林과의 離畔 등을 들었고, 權仁浩는 <조식-실천하는 지성>(《시사월간 WIN》, 중앙일보사, 1997 11)에서 남명이 처사로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점, 과격한 상소 등으로 많은 정적을 만든 점, 문묘에 종사되지 않은 점, 관계 후손의 자긍심이 부족한 점 등을 보았다
- 2) 남명학에 대한 원전 및 연구논저 목록은 吳二煥(1996), <南冥學 關係 既刊文獻 目錄>(《南冥學研究論叢》4, 南冥學研究院)과 정우락(1998),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박이정 「부록」 참조
- 3) 韓相奎(1990) <曹植의 教育思想研究>, 中央大 博士學位論文  
史載明(1999), <南冥 曹植 教育思想의 繼承>, 慶尙大 博士學位論文  
蔡輝鈞(1999), <南冥學派의 教育思想 研究>, 嶺南大 博士學位論文
- 4) 權仁浩(1990), <朝鮮中期 士林派의 社會政治思想研究 -南冥 曹植과 來庵 鄭仁弘을 中心으로->, 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명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남명집》판본의 번개에 대한 사상사적 배경이 연구<sup>5)</sup>되기도 했다 또한 남명문학이 지닌 현실주의적 성격이 단일한 이론에 의거하여 탐구<sup>6)</sup>되는가 하면,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가 역사적 시각에서 분석<sup>7)</sup>되기도 하고, 남명학파와 화담학파가 비교사학적 측면에서 해명<sup>8)</sup>되기도 했다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학문분야에 비해 소략하다 이것은 남명 스스로가 시를 '玩物喪志' 혹은 '驕傲之罪'를 더하는 물건으로 정의하며 창작을 즐기지 않은 것이 그 한 가지 이유이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작품이 너무 난해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른 고급독자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다른 한 가지 이유였다 정인홍이 스승의 시집을 내면서 머리말에서 제시한 언명은 그 좋은 증좌이다 '항상 시가 사람의 마음을 거칠게 만든다는 훈계를 갖고 계셨는데, 시인은 意致가 텅비어 있으므로 배우는 사람의 큰 병통이 된다고 여기신 까닭에 시 짓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든가 '평일 시문을 지을 때 당초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람처럼 몰아가듯 번개처럼 빠르듯이 하여 다시 고치지 않았으므로 기이한 말과 심오한 뜻은 宿儒라도 혹 꿰뚫어 보지 못했다'라든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남명문학은 그 소략성과 난해성에도 불구하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명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본격화되었고, 이후 남명의 상상력이 어떻게 통일되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살펴나갔다 자료의 성격에 따라 두 방향으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남명 작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명 전승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전자는 시문 등 남명이 그의 언어로 창작한 작품과 〈학기류편〉처럼 일정한 그의 학문체계에 의거하여 편집한 작품 가운데 창작작품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고, 후자는 남명관련 실록이나 실기 등의 역사적 전승과 문헌·구비설화 등의 문학적 전승 가운데 문학적 전승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남명문학 연구에서 창작작품과 문학적 전승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여 편집작품과 역사적 전승자료들에 대한 연구사적 존재의의가 상실되는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들 역시 남명문학 연구의 보조적 자료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이 이같으므로 남명학 전체의 연구구도 하에서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영역은 다음과 같은 구도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

- 
- 5) 吳二煥(1997), 〈『南冥集』諸本の成立とその思想史的背景 -17・18世紀の刊本を中心として-〉 日本 京都大 博士學位論文
  - 6) 鄭羽恪(1997), 〈南冥文學의 意味表出樣相과 現實主義的 性格 研究〉,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 7) 李相弼(1998),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 8) 申炳周(1999), 〈朝鮮中期 處士型 士林의 學風 研究 -南冥學派와 花潭學派를 중심으로-〉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위의 그림에서 남명의 창작작품(남명-a-a)과 문학적 전승(남명-b-b)은 남명에 대한 문학적 접근의 본령이다 전자는 남명이 직접 창작하였으니 '남명에 의한 문학'이라 할 것이고, 후자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남명이 전승되는 것이니 '남명에 대한 문학'이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명문학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 역시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지금까지의 남명문학 연구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자 역시 남명을 문학적 시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여기에는 설화와 같이 역사적 현실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야기들이 민중의 상상력과 교섭되면서 전해지는가 하면(남명-b-b-a의 경우), 비평과 같이 남명의 작품에 대한 당대인의 구체적 평가가 일정한 시각에 의해 노출(남명-b-b-b의 경우)되기도 하기 때문이다<sup>9)</sup>

그 동안 남명에 대한 문학적 탐색은 연구자들의 고뇌에 찬 노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약 20년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야 할 남명문학 연구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해 볼 때다 또한 같은 해에 태어나 영남의 좌도에서 남명과는 또 다른 세계관으로 문학활동을 전개하였던 退溪(李滉, 1501~1570)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과 그 제자들은 때로 갈등하고 때로 화합하면서 조선중후기 영남문학을 주도하였는데, 본고에서는 퇴계와의 비교 역시 문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남명문학의 특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서로 다른 세계관에 입각한 문학활동을 하였지만 상생적 원리에 입각한 고차적 화합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고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분명해졌다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사적

9) 남명 전승인 남명에 대한 문학' 역시 본고에서의 검토대상으로 한다 남명문학, 즉 '남명에 의한 문학'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남명을 문학적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명의 창작작품이 그리 많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서 여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검토와 남·퇴<sup>10)</sup>의 문학적 입장에서 의 비교논의, 그리고 남명문학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사적 과제 설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사상 제기된 남명문학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는 먼저 시간의 흐름을 한 축으로 하여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사를 종적으로 개관(2장)하고, 다음은 연구 경향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연구사를 횡적으로 검토(3장)한다 남명문학 연구사상 필연적으로 제기되기 마련인 통시성과 공시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퇴의 문학적 측면에서의 비교논의를 통해 남명문학이 지닌 특성 역시 도출(4장)해 내고, 마지막으로 남명문학의 연구사상 제기된 그 과제를 탐색(5장)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사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研究史 概觀

남명문학에 대한 단편적 언급은 당대부터 진행되어 왔다 최초의 언급은 退溪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남명의 문학을 '奇險'으로 요약하였다 또한 퇴계의 문인이었던 權應仁(1517~?)은 소동파의 시가 중국에서 뛰어났다면 국내에서는 남명의 시가 제일이라 하였고, 許筠(1569~1618) 역시 房應賢(1524~1589)의 말을 빌어 남명의 시를 당대의 명작이라 하였다 그러나 金昌協(1651~1708)이 남명을 들어 기이한 것을 숭상하는 것이 뛰어나기는 하나 그의 시문은 대부분 말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거나, 《광해군일기》에서의 史臣이 그 문사가 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결코 도를 파악하고 이치에 도달하는 말이 아니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sup>11)</sup> 이같이 남명문학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교차되는 가운데 李睟光(1563~1628), 申欽(1566~1628) 등에 의해 남명문학의 품격, 작품경향, 창작기법 등이 두루 언급되었다 이들은 말뜻이 높고 시운이 호장하며 대단히 기이하다고 하기도 하고, 현실과 밀착되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비유와 풍자에 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같은 평가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이후 많은 논자들에 의해 남명문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10) 남명과 퇴계를 줄여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다 남명을 앞세운 것은, 본 논의가 남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생년은 1501년으로 같지만 생월(남명 6월 26일, 퇴계 11월 25일)로 보면 남명이 다소 앞서기 때문이다

11) 남명문학에 대한 평가는 인조반정 이전과 그 이후가 현격하다 부정적 평가는 서인-노론계열이 인조반정을 합리화하려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김창협과 《광해군일기》 史臣의 所論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창협은 주자학의 무모순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명문학을 비판하였고, 사신은 鄭仁弘의 이른바 晦退辨斥劄에 대한 평을 하는 자리에서 남명문학을 비판하였다 남명문학에 대한 김창협의 편협한 시각과 함께 《광해군일기》가 인조반정 이후 서인-노론 계열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남명문학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남명문학에 대한 언급은 신문학이 시작되면서 문학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金台俊은 《朝鮮漢文學史》에서 사화기 이후 명종조의 유일로 남명을 떠올렸고, 李家原은 《韓國漢文學史》에서 朴趾源(1737~1805)의 지적을 제시하며 남명은 현실도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적기하고 있다. 이같은 평가는 당대인의 남명 시문평과 함께 이 분야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남명문학은 1980년대에 들어 비로소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자의성과 모호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을 일정한 단위로 끊고 그 기간 내에 나타나는 연구자들의 연구방법론적 변이과정을 추적하도록 한다. 편의상 단위를 5년으로 하면 지금까지 4기가 된다. 제 1기는 1981년에서 1985년까지, 제 2기는 1986년에서 1990년까지, 제 3기는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제 4기는 1996년에서 현재까지이다.

제 1기(1981~1985)는 주로 남명문학이 작가론적 측면에서 소개되면서 단일 연구영역을 확보해 나가던 시기이다. 작가의 생애 혹은 사상을 기반으로 남명의 작품을 형식과 내용적 측면에서 개괄하는 것이 이 시기 연구자들의 주요 임무였다. 생애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남명 시문학의 주제를 나열(김려석/03, 서원섭·이홍진/04)<sup>12)</sup>하기도 하고, 그 주제를 몇 가지로 집약(전병윤/09)시키기도 하고, 남명정신의 후대적 계승문제를 논의(이하석/08)하기도 했다. 또한 남명의 부문학에서 작가의 사상 읽기를 시도한 연구자(권정호/06)가 등장하는가 하면 비교문화적 혹은 문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가기도 했다. 비교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花潭(徐敬德, 1489~1546)과의 비교를 통해 처사문학의 내적 다양성을 논의(정경주/02)하였고, 퇴계와의 비교를 통해 영남학파의 두 종장에 대한 문학인식을 예각화(김주환/07)하였다. 문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지은이가 남명으로 알려진 국문시가의 텍스트 확정문제에 관심을 두고 논의가 개진(이동영/01·05)되었다.

제 2기(1986~1990)는 남명문학 연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연구자들은 시문학을 통해 단일한 작가정신인 구세정신(허권수/12)을 찾아내기도 하고, 부문학 특히 〈민암부〉의 창작동기 및 형식과 표현특성(양희철/13·이상필/15)을 탐구하기도 했다. 이는 남명문학의 핵심에 보다 근접하기 위한 일단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남명의 산문작품, 남명의 문인유형, 전승에 대한 문제 또한 이 시기에 두루 언급되었다. 이는 제 1기보다 그 연구영역을 더욱 확대한 것이었다. 산문작품은 〈유두류록〉이 중심(이재익/11)이 되었고, 문인유형의 귀속은 조선전기 방외인문학의 성격을 따지면서 논의(윤주필/14)되었다. 그리고 남명 전승이 주목(이상원/10)받기도 했는데, 이는 남명에 대한 문학

12) 연구자 및 번호는 논문 말미에 첨부한 남명문학 연구논저 목록에서의 연구자와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이하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적 접근을 위한 또 다른 노력이었다

제 3기(1991~1995)는 남명문학 연구가 작품론적 측면에서 심화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연구자들이 선택한 작품장르는 다양하다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꾸준한 강세를 띠면서 깊이를 더했고, 부에 대한 연구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문에 대한 연구 역시 앞 시기에 비해 다양화되었다 남명의 特立獨行에 기반한 특이한 격조(김충렬/18), 正士의 기질에 바탕한 뛰어난 작품성(이종찬/24), 旅遊詩에 담긴 작가의 의식(김윤수/22), 자연과 인간에 대한 문제 및 미의식(장원철/25) 등은 시문학을 통해 조명되었고, 남명의 학문방법론과 현실인식(김지엽/16) 및 천명사상과의 관련성(필자/20) 등은 부문학을 통해 논의되었다 그리고 산문작품에 대한 연구에서는 <유두류록>의 창작원리(필자/21),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정신세계(이정희/23·최석기/27), <엄광론>의 대립구조 및 비판정신(필자/26) 등이 두루 논의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작가론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관심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작가정신의 기본구조(이동환/17)가 세워지고, 작가의 통일된 의식구조(필자/19)가 제시된 것이 그것이다

제 4기(1996~현재)는 남명문학 연구가 작가론적 측면에서 심화되는 시기이다 즉 앞 시기의 작품론적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가론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남명문학에서의 현실주의 형성배경(필자/28), 자아가 사물에 접근하는 방법 및 그 문학적 형상(필자/32), 퇴처에 입각한 현실지향이라는 역설적 현실주의(필자/33)와 노장적 취향의 이상향 추구(홍성희/34)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는 남명 전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고, 창작작품 이해를 위한 또 다른 모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전자는 문학적 전승인 설화에 지속적인 관심(윤주필/31·필자/42)을 가지면서도 현대소설에 전승되는 남명상(조구호/29)을 탐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남명이 지은 墓誌(Sonja Haußler/35), 남명 詩韻의 중국 시운과의 비교(유광화/30), 남명 銘文에 대한 의미분석(이상원/38), 남명시에 나타난 隱逸心理(권호종/36) 혹은 閑邪存誠의 문학적 형상(정경주/37), 남명의 시에 대한 인식과 그 분석(왕배원·김덕환/41), 그리고 남명 시조의 작자 문제에 대한 문헌학적 이해(김일근/40)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의 기호에 따라 일견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온 것 같다 그러나 이상에서 보았듯이 연구사에서 제기된 고민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출되면서 반성과 모색, 그리고 그 극복이라는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먼저 작가론적 측면에서 남명과 그의 작품을 학계에 개괄적으로 소개(제1기)하고, 다음으로 본격적인 문학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이 모색(제2기)되는가 하면, 여기에 의거하여 보다 철저한 개별작품에 대한 심층적 탐구(제3기)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남명문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고심과 그 결과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 시기 작품론적 탐구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작가

론이 보강(제4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명문학 연구가 이처럼 단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시문학 중심의 창작작품에 대한 관심이 구심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명 전승과 비교문학적 혹은 문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그 원심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남명문학 연구사상 발생하는 이같은 현상은 보다 큰 연구사 건설을 위한 내적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研究 傾向別 檢討

연구사 개관에서 알 수 있었듯이 남명문학은 일련의 흐름을 지니면서 연구되어 왔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사에서 검출되는 경향별 연구성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남명에 대한 문학적 접근은 그의 창작작품에 대한 연구와 전승에 대한 연구로 대별되고, 이 가운데 전자가 연구의 중핵을 이룬다 이는 장르를 변별하여 각 작품에 나타나는 의미를 밝히는 연구와 장르를 통합하여 작가의 의식구조를 해명하는 연구로 다시 분리된다. 작품과 전승에 대한 연구가 모두 남명에 대한 문학적 해명이라는 독립된 연구과제를 실천한 것이라면, 비교문학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다른 작가와의 비교 하에 남명문학의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보면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장르 변별적 연구,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장르 통합적 연구, 문학적 전승자료를 통해 남명형상을 따지는 전승에 대한 연구, 그리고 다른 작가와의 관계 하에서 남명문학을 이해하는 비교문학적 연구 등 네 가지 경향을 이룬다 이를 순서대로 따지는 것이 본 장의 과제이다

먼저 장르 변별적 연구부터 살펴보자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남명은 210여수의 시를 비롯한 운문과 〈유두류록〉을 비롯한 산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긴다 이 가운데 시문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시문학을 다루면서 연구자가 가장 먼저 시도하였던 것은 남명시의 형식과 내용의 개관이었다 남명문학 연구에 있어서의 초기적 현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김려석(03)과 서원섭·이흥진(04)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7言絶句가 가장 많고 6言絶句가 가장 적은 형식상의 특징과 함께 ‘勸學立志’, ‘治世爲國’, ‘節義清貧’, ‘江湖閑情’, 또는 ‘贈答詩’, ‘次韻詩’, ‘山水詩’, ‘詠物詩’로 남명시의 내용을 분류하였다<sup>13)</sup> 이는 남명시를 전체적 규모 및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13) 왕배원 김덕환(41) 역시 남명시의 내용을 분류하였다 이들은 우선 남명이 보인 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살폈는데, 이는 당대의 모순현실에 대한 처세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남명시를 ‘題咏類’ ‘贈答類’ ‘紀遊類’, ‘感賦類’로 분류하여 남명시 이해의 편폭을 넓혔다

는 장점이 있으나 남명시의 주제를 선명하게 들어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전병윤(09)과 이종찬(24)의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데서 의의를 지닌다. 즉 求道論學에 기반하여 集義의 사상과 관련된 사회시 혹은 성리학적 사상체계를 자연물에 寓意한 자연시로 분리하거나, 실천을 중시하는 正士的 기질의 실천성 혹은 일상을 초탈한 山雲的 恣意의 예술성으로 구분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남명시의 주제가 사회현실과 강호자연이라는 두 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견지하였다.

여기서 사회현실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강호자연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가 따라 남명시의 주제는 두 갈래로 나뉜다. 전자에는 허권수(12)와 김충렬(18)이, 후자에는 권호종(36)과 홍성희(34)<sup>14)</sup>가 참여하여 논의를 펼쳤다. 허권수는 남명시에서 단일주제를 찾아냈다. 救世精神이 바로 그것이다. 즉 남명의 시에 선비상 정립과 출처의 대결, 그리고 世道匡正이라는 구세의 논리가 뚜렷이 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충렬이 淑世精神을 남명시에서 찾아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그는 남명의 特立獨行과 이와 관련한 남명시의 특이한 격조에 주목하고, 남명은 자신의 독특한 뜻을 읊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을 노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영사시에는 역사교훈에 입각한 현실적시와 미래에의 대비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했다. 이에 비해 권호종은 남명시에 나타나는 隱逸心理를 찾으려 했다. 남명의 작품에 등장하는 출사 혹은 은거와 관련된 중국인물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허유와 소부, 백이와 숙제, 阮籍과 謝安 등 다양한 중국인물의 등장은 각각 남명의 樂道守志, 非君不仕, 혹은 노장적 은일심리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하였다. 홍성희는 남명의 노장적 취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즉 남명은 그의 작품을 통해 무릉도원형의 도가적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현실에 보다 밀착시켜 남명의 구세정신 혹은 숙세정신을 찾기도 하고 강호자연에 보다 밀착시켜 남명의 은일심리 혹은 도가적 이상을 찾기도 하면서 남명시의 주제가 분열될 위기에 놓였다. 사정이 그럴 수 없다는 데서 문제의식을 예각화한 논의가 김윤수(22)와 장원철(25)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윤수는 남명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거나 산천을 유람하면서 지은 旅遊詩에 주목하였다. 그는 남명이 산수를 유람하면서도 산수에 用心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산수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고 이것에 기반하여 지은 남명의 시는 실용적인 군자의 시가 압도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회현실과 강호자연 사이에서의 남명의 고민은 장원철에 의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남명의 外王重視와 은일적 처세라

14) 홍성희(34)는 이 논의에서 부문학 역시 다루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장르 통합적 연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문학이 논의의 중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남명의 산문작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장르 변별적 연구의 하위분류인 시문학에 대한 연구에 편입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는 상호 모순된 듯한 입장을 '자연의 인간화'로 이해하고, 자연 속에서 세사로부터 끝내 자유로울 수 없었던 남명의 고민이 陽剛의 미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정경주(37)는 '閑邪存性'의 문학적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따져 철학적 추상의 논리가 문학적 상상의 매개물과 결합되는 구체상을 보이며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남명의 작품 중 부문학 또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되었다. 3편의 남명 부작품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단연 〈민암부〉였다. 이 작품을 작품론적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양희철(13)이다. 그는 〈민암부〉가 文賦的 형식을 지닌 것으로 보고 이 작품이 지닌 표현특성과 주제변용의 문제를 두루 살폈다. 楮比·興·問答式, 그리고 對句法을 형식적 측면에서 적절히 사용하고 있으며, 進言이나 상소적 내용이 부의 형식과 결합된 특징을 지닌다고 했다. 이에서 나아가 이상필(15)은 기층사회 민중의 처절한 삶과 당대의 사변적 학풍 등에서 그 창작동인을 찾는 한편 구성과 표현특성 역시 살폈다. 〈민암부〉는 고부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산문적 분위기가 압도적인 문부적 속성을 아울러 지니는 것으로 보고, 기승전결의 완벽한 구성, 육중하고 변화있는 리듬, 장엄하고 단호한 의미를 주는 어조사의 적절한 사용, 촉급한 의미를 주는 입성운의 頻用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중에 의한 역성혁명의 논리까지 과감하게 수렴하여 조선전기 도학과의 문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던 방향과는 다른 차원의 의의를 지닌다면서 문학사 안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려는 주밀성을 보였다.

〈민암부〉의 형식과 주제 및 문학사적 의의 등을 두루 논한 것과는 달리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천명문제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있었다. 권정호(06)와 필자(20)의 논의가 그것이다. 권정호는 남명의 〈민암부〉에 임금과 관리가 모름지기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畏民論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보고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민주의식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외민론이 바로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천명사상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통일된 논리로 이해하고 이것의 문학적 형상을 따진 논의가 필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즉 《서경》을 통해 '천-군-민'의 역동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민의 원성과 천의 결정 및 왕조의 멸망은 인과론적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15세기부터 야기된 사대부 정치의 모순을 남명이 민감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같은 관계설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암부〉가 남명 부문학 연구의 주조를 이루지만 여타의 부, 즉 〈원천부〉와 〈군법행주부〉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원천부〉에 대한 관심은 권정호(06)와 김지엽(16)이 보였다. 권정호는 이 작품에서 제기 되는 개념을 직관적 감각적인 표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인식논리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원천부〉는 천명사상에 바탕한 畏天思想이 주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김지엽은 근원

있는 샘물의 지속적인 흐름은 학자로서의 자세나 학문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면서 작품 해석상의 쟁점을 유발시켰다 권정호가 <원천부> 말미의 '敬으로써 그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한다'는 구절을 주목한데 비해, 김지엽은 이 작품의 표면에 흐르는 문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김지엽은 <군법행주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남명이 한나라 유장의 고사를 빌어 당대의 정치기강 확립과 퇴폐풍토를 척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편 남명의 국문시가와 '銘'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도 했다 국문시가에 대한 최초의 견해는 이동영(01)에 의해 피력되었다 그는 영남우도의 국문시가를 언급하면서 남명작으로 알려진 8수의 시조 중 <西山落日歌>와 <頭流山歌>만 남명작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동영(05)<sup>15)</sup>은 이후의 논고에서 종전의 견해를 수정하여 현전하는 남명의 국문시가는 없다고 단언했다 <서산락일가>는 진동혁의 견해를 받아들여 金應鼎(1527~1620)의 작으로, <두류산가>는 남명의 正體와 맞지 않는다면 金駟孫(1464~1498)의 작품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동영의 견해를 정면에서 반박한 논의는 김일근(40)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6)</sup> 그는 <두류산가>의 경우 20종의 문헌에 모두 지은이가 '조식'으로 되어 있다면서 남명작임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의 定本 역시 고증하였다 또한 '조식'으로 記名된 작품 중 <서산락일가>(김웅정), <金烏玉兔歌>(조종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조 역시 남명작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명'에 대한 연구는 이상원(38)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남명 銘文이 지닌 의미층위를 추출하여 대립항과 그 의미지향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이들 국문시거나 '명'에 대한 연구는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모두 일정한 의의를 확보하고 있다 하겠다

남명의 산문작품은 두류산을 유람하고 쓴 <유두류록>이 가장 많이 논의되었다 이 작품을 먼저 주목한 연구자는 이재익(11)<sup>17)</sup>이다 그는 영남지방의 두류산 유산기를 대상으로 분석하면서 남명의 <유두류록>도 함께 검토하였는데, 남명이 소극적으로 진리와 낙토를 찾기 위해 두류산을 유람한 것으로 보고 주제 역시 이와 관련시켜 논의하였다 이같은 시각에 일정한 이의가 제기된 것은 필자(21)에 의해서다 남명의 두류산 여행은 현실과의 유기성 속에서 마련된 것이니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한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작품이 지닌 창작원리도

15) 이동영(05)의 이 논의는 <朝鮮嶺南詩歌의 研究>(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83)에서 남명 부분을 적출한 것으로 <嶺右詩歌의 樣相>(《時調文學論叢》3 4, 韓國時調學會, 1987)에서 재론되었다 또한 박사논문은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釜山大學校出版部, 1984)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간행된 바 있다

16) 김일근(40)의 이 논의는 <曹南冥 時調의 作者存疑說에 對한 辨正>(제38회 전국 국어국문학 연구발표대회 발표요지, 1995 5)과 <曹南冥 時調에 對한 新考 -頭流山歌를 중심으로->(제21차 한국 시조학연구발표대회 발표요지, 1996 6)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7) 이재익(11)의 이 논의는 <頭流山 遊山記 研究>(釜山大 教育學碩士論文, 1988)에서 남명부분만을 적출한 것이다

함께 제시하였는데 사실적 기록의 문학적 확장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정희(23) 역시 조선전기 두류산 유산기를 두루 다루면서 영남우도 사림의 정신세계를 구명하였는데 그 주제는 역사적 현실과 밀착된 것이었다 <유두류록>에 대한 논의가 이같이 전개 되는 과정에서 남명의 산수유람에 대한 기본관점을 제시하며 그의 정신세계를 고찰한 최석기(27)의 논의는 일 진전이였다 그는 '看山看水 看人看世'라는 남명의 언표에 주목하며 산수를 통해 역사를 보고 역사를 통해 다시 현실을 보려 했던 것이 산수에 대한 남명의 기본관점이라 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자아에 대한 성찰과 심성수양, 역사에 대한 회고와 현실인식 등을 두루 살펴 <유두류록>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였다

남명의 산문작품에 대한 연구는 여타의 장르로 확대되기도 했다 필자(26)의 <엄광론>에 대한 연구와 Sonja HauBler(35)의 '묘지'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필자는 <엄광론>의 구조와 이것을 통한 비판정신을 출처의식에 의거하여 살폈다 즉 <엄광론>에서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의지가 상호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대립현상을 관찰하고 이같은 대립구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비판정신이라 하였다 Sonja HauBler는 남명이 지은 묘지를 등장인물, 작성날짜, 주요내용, 묘명 등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성날짜와 묘지작성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다 남명이 묘지를 작성한 것은 대체로 생애의 후반이라 하겠는데, 그가 28세 때 부친의 묘지를 짓고 있어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견주어 볼 때 특이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묘지작성의 기본원칙으로 진실성과 소박성을 지적하였다 흔히 통용되는 고전의 인용이라든가 고대 현인과의 비교 없이 사실에 입각한 소박한 형태로 묘지가 기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남명이 묘지를 작성하면서 지켜온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르 변별적 연구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장르 통합적 연구를 살펴볼 차례이다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어느 한 장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이와는 달리 한시를 비롯하여 기행문, 논, 상소문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두루 나타나는 공통 문맥을 찾아 남명 정신의 핵심을 해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하석(08), 이동환(17), 필자(19·28·32·33) 등이 그들이다 이하석은 시 작품의 분석을 통해 남명 氣節의 특이성을 발견하고, 기절의 의미를 상소문이나 부 등에서 찾았다 즉 상소문 등에서의 거침없는 현실비판, <민암부> 등에서 제시된 '군-민'에 대한 횡적관계 등은 당대로서는 가히 혁명적이라 하였다 이와 함께 남명정신이 관리의 폭정에 항거하는 진주민관 등으로 이어진다면 남명학의 전통 내지 계승에 대한 견해 또한 피력하였다

이하석이 강한 기절의 소유자로 남명정신을 범박하게 이해한 것과는 달리 이같은 기절의 발생처를 남명의 정신구도 하에서 살핀 것은 커다란 진전이였다 이동환에 의해 이 작업은 이루어졌다 그는 우선 남명학의 기본적인 특성을 '旁通百家

斂煩就簡 反躬造約'에서 찾고 '內明'의 敬과 함께 '外斷'의 義를 아울러 중시한 점이 남명정신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였다. 남명정신에서의 장자사상의 역할을 주목하기도 했다. 즉 유학의 다른 면모로서 남명사상의 전체구조 속의 역동성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자아정립의 거대지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書劔柄贈趙壯元瑗〉이나 雷龍亭 銘文 등에 보이는 부동과 역동의 변증법, 한시나 〈엄광론〉 등에서 제시되는 역사문화에 대한 일종의 사명의식, 민중세계에 대한 강렬한 관심과 애정을 통한 남명의 현실세계의 지향성 등을 두루 검토하였다. 이동환의 논의에 힘입어 필자(19)<sup>18)</sup>는 경의사상의 문학적 표출방법과 작가의식을 따졌다. 즉 內明의 성격을 지닌 경사상은 '빛'과 '침수' 등으로 표출되며, 外斷의 성격을 지닌 의사상은 '산'과 '나무' 등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보였다. 작가의식 역시 이와 관련하여 현실과 초월의 서로 다른 세계인식을 통해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차원 높은 현실의식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했다.

필자는 또한 장르 변별적 연구에서 얻은 연구성과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남명문학에서 현실주의가 생성될 수 있었던 배경을 역사적 상황과 작가의 반응이라는 논리 하에 탐구(28)하기도 하고, 남명문학 전체를 일정한 이론 하에 파악(32)하기도 했다. 이들 논의에 기반하여 〈誠爲太極圖(太極圖與通書表裏圖)〉를 중심으로 합일론, 조화론, 대립론을 이끌어내고 이것의 형상화를 구체적 작품에서 점검하여 현실주의적 성격을 따지는 논의로 확대(33)해 나갔다.<sup>19)</sup> 여기서 필자는 남명문학이 합일과 조화적 세계인식에도 일정부분 연결되어 있지만 대립적 세계인식에 입각한 자아의 외적 확산으로 자신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가다듬어 갔다고 했다. 그리고 남명은 출처의식에 입각한 퇴치를 통해 이를 강조하였으므로 그의 현실주의는 역설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다음은 남명 전승에 대한 연구이다. 남명 전승은 설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참여한 연구자로는 이상원(10), 윤주필(31), 필자(42) 등이 있다. 이상원은 이 방면의 연구를 개척하였는데, 남명 전승자료 27편을 수집하여 天·地·人因野乘, 그리고 복합야승으로 분류하고, 남명 전승은 지명 유래전설 등 지인야승이 가장 많으며 대체로 남명 연고지역인 산청지방에서 전해진다고 했다. 여기서 나아가 윤주필은 남명 전승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즉 남명 전승을 탄생담, 여성관계담, 학자담, 이인담으로 분류하고, 야담 내지 문헌설화에서는 학자담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구비설화에서는 여성관계담과 이인담의 비중이

18) 필자(19)의 이 논의는 〈南冥文學의 敬義思想 表出方法〉(《南冥學研究》2,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1992)과 〈敬義思想을 통해 본 南冥의 作家意識〉(《伏賢漢文學》8, 伏賢漢文學會, 1992)으로 나뉘어 보완되었다.

19) 필자의 28·32·33번 논문은 작품론적 측면에서 발표되었던 20·21·26번 논문과 함께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박이정 1998)에서 정리되었다.

높은 편이라고 했다 그리고 퇴계, 율곡, 화담 등의 전승에 비해 남명 전승은 탄생담과 이인담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여타의 도학자와 비교하기도 했다 필자는 야담계 서사체 역시 문헌설화에 편입시켜 남명 전승의 양상과 그 의미를 살폈다 전승의 유형을 인품담, 제자 관련담, 퇴계 관련담, 이적·이인담, 갈등담, 지명유래담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문헌설화는 논쟁의 형식으로 구비설화는 변이의 형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특정한 역사에 대한 민중의 생각까지 전승자료는 담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전승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조구호(29)가 있다 그는 설화적 전승에서 벗어나 현대소설에서의 남명 전승을 탐구하였다 허구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는 의도는 이 방면의 다른 연구자들과 같다고 하겠으나 자료를 현대소설로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사뭇 다르다 그가 주목한 자료는 홍명희의 《입격정》, 이재운의 《토정비결》, 정동주의 《백정》이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남명상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강직한 은일지사, 도가적 방외인, 실천유학자의 표상이 그것이다 이 논의는 설화로 고정되어 있는 남명 전승을 소설문학에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교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비교 논의는 대체로 세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같은 처사계열 작가와의 비교, 영남좌도의 종장인 퇴계와의 비교, 중국 작가와의 비교가 그것이다 첫 번째에 참여한 연구자는 정경주(02), 두 번째에 참여한 연구자는 김주한(07),<sup>20)</sup>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함께 고려한 연구자는 윤주필(14), 세 번째에 참여한 연구자는 유광화(30)이다

정경주는 학덕과 인망을 갖추고 일세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인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자를 처사로 보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한 세계가 한결 같지 않음에 착목하여 남명과 함께 화담을 떠올렸다 그리하여 화담이 物理를 추구하며 관념적 경향이 있는 반면 남명은 土 본연의 책무인 憂國安民에 더욱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김주한은 남명과 함께 퇴계의 학문관을 살피고 여기에 의거하여 문학에 대한 생각도 두루 살폈다 퇴계가 孔孟程朱의 위대성은 立言垂後에 있다고 본 데 비해 남명은 무엇보다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생각도 달리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퇴계는 시 창작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남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소설에 대한 견해도 검토하였는데 퇴계가 《金鰲神話》를 비판한 데 비해 남명은 《장자》우언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심성소설인 〈천군전〉을 짓게 하였으니 소설사의 배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20) 김주한(07)의 이 논의는 〈退溪와 南冥의 文學觀 小考〉(《民族文化論叢》5,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1984)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는 다시 《韓國文學批評史論》(學士院, 1993)에서 정리 수록되었다

윤주필은 타의적으로 은자가 되어야 하는 신세에 놓여 있는 사람과 가운데 친방외적 성향이 생겨났다고 보고 남명과 아울러 화담, 대곡을 거론하며 이들을 비교하는가 하면 퇴계에게 일정한 비판을 받았음에 주목하여 자연히 퇴계와의 비교도 이루어지게 했다 즉 화담이 본체론적 연구에 침잠했다면 남명은 '人事'를 대단히 강조했으며, 대곡은 〈醉鄉記〉 같은 우의적 작품을 남겨 산림처사로서는 말할 수 없는 내심의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퇴계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시대에 대한 위기감을 지니고 유가적 수행과 학문연구를 통해 자기의 입지점을 마련하면서 몸소 방외인의 영역 쪽으로 한 발 내어 디딘 작가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했다

이밖에 유광화는 남명의 詩韻을 중국의 용운체계와 비교한 독특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16세기 조선문학의 語音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남명시를 중심에 두고 河受(1553~1612)의 시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들 시에 나타난 압운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용운체계를 분석한 후 중국시의 용운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명의 시운은 평수운을 따라 압운하지 않았고 중국의 宋元明 시기의 중국어 운부체계와도 커다란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송대 이전의 중국어 어음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남명 및 송정시의 압운은 동일 시대 중국어 어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송대 이전의 중국어 어음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는 이상에서 보듯이 네 가지의 커다란 경향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장르 변별적 연구는 대체로 작품론적 측면에서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운문문학은 시문학을 중심으로 부 및 銘 등의 연구로 확대되어 갔고, 산문문학은 지리산 기행록인 〈유두류록〉을 중심으로 〈엄광론〉 등의 연구로 그 범위를 넓혀갔다 장르 통합적 연구는 작가론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는데, 연구자들은 어느 한 장르를 고집하지 않고 남명의 다양한 창작작품 중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포착하여 작가의 의식구조를 해명하려 하였다 남명 전승의 연구 역시 시도되어 남명의 창작작품이 지닌 자료적 한계에서 벗어나 설화 및 현대소설에서의 남명형상을 두루 따졌다 남명에 대한 문학적 해명을 위한 유연한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앞의 셋이 남명의 작품 및 전승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라면 비교문화적 연구는 남명을 화담과 퇴계 등 여타의 작가와 비교한 것이니 관계론적 측면에서의 남명 이해라 하겠다 이로써 우리는 남명문학의 내적 혹은 외적 접근을 통해 남명의 작품세계 및 작가의식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4. 退溪文學과의 比較

남명과 퇴계는 여러 측면에서 비교되면서 알려져 왔다 鄭述(1543~1620)와 李瀾(1579~1624)의 증언을 통해 그 요체를 알아보자 정구는 宣祖를 배알하는 자리에서 '이황은 덕이 두텁고 학문이 순수하여 학자들이 쉽게 찾아들 수 있으나, 조식은 특립독행하여 학자들이 요점잡기를 어렵게 여깁니다'라고 하였고, 이익은 경상도의 상도와 하도를 대비하면서 '두 학자가 다같이 영남지역인 소백산 아래와 두류산 동쪽에서 태어났지만 상도는 인을 숭상하고 하도는 의를 주로 하며, 퇴계의 학문이 바다처럼 넓다면 남명의 기질은 태산같이 높음에 견줄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각각 '德厚學純·尙仁·海濶', '特立獨行·主義·山高'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인데, 이익이 다른 글에서 '日月春風'과 '壁立萬仞'으로 퇴계와 남명을 비교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같은 비교를 통해 우리는 남·퇴의 기질적 상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문학에 대한 생각 역시 이들 평가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문학인식 및 미의식의 비교, 그리고 상호비평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남명문학의 특성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먼저 남·퇴의 문학인식에 대해서이다 남명은 도학에 기반한 문학적 행위만 인정하였다 정자와 주자 이후 더 이상 저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으며 修辭立言을 즐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각이 이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시가 현실에 적용될 때는 나름대로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다 즉 〈和靑香堂詩〉 같은 곳에서는 '칠언시 오언시가 만금의 가치가 있지만, 결의 사람은 한 편의 시로만 간주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시에 대한 일정한 존재의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본다 이에 비해 문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남명은 대단한 공을 들였다 정인홍은 스승의 행장에서 남명의 기상과 관련된 문세, 문장의 독창성, 고문의 강조 등 남명 문장의 특성을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남명 스스로도 〈與柳海龍書〉 등에서 관련사항을 부각시키며 《고문진보》후집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남명은 이 책에서 제시된 소동파의 〈적벽부〉를 특히 좋아한 것으로 보인다 즉 '程夫子께서 子瞻을 공격하는 데 비록 힘을 기울이셨지만 만약 선생께서 여기에 계신다면 나는 마땅히 이 賦를 잘 베껴서 한 번 끊어앉아 읽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정선생께서도 반드시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다'라는 발언이 그것이다

퇴계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남명에 비해 적극적인 것이었다 그는 벼슬길에서 물러선 가장 큰 이유로 '立言垂後'를 들었다 입언은 학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도학이 근본이 되며, 그것이 만세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문학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문학과 도학은 相須關係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시가 학자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경치를 만나면 시가 없을 수 없다'면서 창작에 대한 적극성을 보였다 특히 수양의 정도가 작품에 드러난다고 보고 '敦厚

한 실상을 지닌 사람은 그 말이 和正하고 輕躁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말이 부화하다'라고 하면서 正心の 文學을 강조하였다. 문장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정심에 기반한다고 보았으므로 金時習(1435~1493)을 '索隱行怪'로 지목하며 《금오신화》를 배격하였던 것이다. 또한 문장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말은 뜻을 전할 뿐이지만 학자는 문장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문장의 형식미학적 측면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아도 좋을 것인데, 문학에 대한 퇴계의 이같은 적극성 때문에 李珥(1536~1584)나 李滉(1510~1557) 등에 의해 '因文入道', 혹은 '文章道德 可謂兩備' 등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남·퇴의 미의식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명은 林下에서 평생 처사적 삶을 살았다. 하나 그의 관심은 世道匡正에 있었다. 그의 관심이 이처럼 현실로 열려 있었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대립되어 있었던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려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남명의 '托興規風'이라는 미학의 기본성향을 짐작하게 된다. 남명이 비유에 장기가 있었으며 해학으로 조롱하고 풍자하는 英氣가 있었다는 것은 여러 자료에서 전한다. 남명의 문학에 천일합일의 온후한 경계가 나타나지 않은 바 아니나 근본적인 미의식이 이러했으므로, '바람에 떨리는 나무를 생각하며 의리를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슬퍼'(<贈吳學錄>)할 수 있었다. '금마문에 세 번 이르렀지만 임금님은 뵈지 못하고 돌아왔다지'(<聞李愚翁還鄉>)라며 李希顔(1504~1559)의 출처를 풍자한 것이나, '조물주는 정녕 추위 속의 매화의 일 그르쳤나니 어제도 꽃 피우고 오늘도 꽃 피운다네'(<斷俗寺政堂梅>)라고 하면서 姜淮白(1357~1402)의 실절을 풍자한 것에서 사정의 이러함을 명확하게 간파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퇴계는 출사와 퇴거를 거듭하지만 그 자신의 뜻은 자연 속에서 본연 지성을 회복하는 데서 얻을 수 있는 '山林之樂'을 맛보는 것이었다. <陶山雜詠并記>에서 비바람에 덮여지기도 했던 중년의 자신을 비판하면서 '오랜 병을 없애고 깊은 근심을 풀며 늘그막에 평안히 지낼 곳으로 이를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는가?'라는 발언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이처럼 자연을 통한 낙도에 있었다. 하겠는데, <陶山記>에서 玄虛와 高尚을 목표로 하는 노장적 자연관을 비판하며 道義를 기뻐하며 心性을 기르는 유가적 자연관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는 퇴계의 은거가 심성의 함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리라 하겠다. 여기서 제기되는 미의식이 바로 '溫柔敦厚'이다. <한림별곡>류에서의 '矜豪放蕩', '褻慢戲狎'과 <六歌>에서의 '玩世不恭' 등도 이로써 비판될 수 있었다. 그러나 퇴계미학의 기본 성향이 이같았다고 하여 현실비판을 외면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온유둔후한 표현 속에서 소극적이거나 비판의식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남·퇴의 상호비평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이다. 남명과 퇴계는 표면



적으로 '畏敬' 혹은 '神交'로 평가하면서 남명이 퇴계의 학문을 깊이 인정하기도 하고, 퇴계가 남명의 지적을 크게 주목하기도 하지만 서로 이면적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니 세계관적 갈등이라고 할 만하다 상호비평 역시 이에서 마련된 것이다 남명은 퇴계에게 지나친 근신, '隱'에 대한 자부, 실천이 따르지 않은 고담성리 등을 두루 비판하는 가운데 문체론에 대한 비평 또한 가하고 있다 퇴계는 남명에게 단성소에서 보이는 과격한 언사, 노장세계에 경도된 학문성향, 음부송사와 관련된 지나친 행동 등을 두루 비판하는 가운데 남명 시문에 대한 비평 또한 가하고 있다 여기서 문학에 대한 상호비평은 남명의 문체론에 대한 비평과 퇴계의 남명시문에 대한 비평이 대표적이다

남명은 자신의 문체를 고문으로 보고 퇴계의 문체는 금문이라 하였다 김우옹에 의하면 남명이 만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다 즉 '나는 고문을 배웠으나 완성하질 못했고 퇴계의 문은 본래 금문인데 오히려 성숙했다 비유하자면 나는 비단을 짜다가 한 필을 완성하지 못하여 세상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그는 깎으로 짚으나 한 필을 이루어 쓸 수가 있다 하겠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이는 퇴계의 문체가 품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활용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퇴계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처럼 남명은 고문을 강조하면서 글을 지었으므로 그가 지은 부친 曹彦亨(1469~1526)의 묘갈명을 두고 南袞(1471~1527)이 '불세출의 고문'으로 칭송할 수 있었으며, 郭鍾錫(1846~1919)에 의해 '고문을 즐겨 지었으니 辭意가 굳세고 변화가 무상하여 무성히 법도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전송하였다'고 평가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퇴계는 世體라고 할 수 있는 語錄體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퇴계가 《심경》을 강의하고 그의 제자들이 여기에 의거하여 주석한 《心經質疑》나 《心經講錄》등을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퇴계는 그의 '운유돈후'한 미의식에 입각하여 남명문학에 대한 일정한 비평을 가하였다 그는 남명의 <을묘사직소>를 평하여 '무릇 상소라 하는 것은 곧은 말을 회피하지 않음이 좋으나 모름지기 꼭진하고 부드러워 뜻은 곧으면서 말이 순하여 과격불공한 병통이 없어야 아래로 臣子の 예를 잃지 않고 위로 임금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명의 상소는 참으로 금세에 얻기 어려운 바이긴 하지만 말이 지나쳐서 비방하는 데 가깝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밖에 어떤 중이 퇴계에게 남명의 시를 바치자 남명시 전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奇險'으로 요약한 것이나, 남명이 지은 <유두류록>을 읽고 '尙奇好異 難要以中道'라며 비평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명의 시가 '기험'하지 않을 때는 그 스스로 남명의 작품에 대한 차운시를 남기기도 하고, <유두류록> 역시 한편으로는 '천고영웅의 탄식을 자아내고 귀신을 어둠 속에서 울게 한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상에서 남·퇴를 문학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남명문학이 지닌 특성을 도출해 보았다 정구나 이익 등이 남·퇴에 대한 기질적 성향을 대비시켜 놓았거니와 문학에 대한 생각이나 미의식 등도 이와 밀접한 관계 하에 비교된다 일정한 문장수련을 하지 않은 바 아니나 문학에 대한 생각은 남명이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것에 응심하면 뜻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퇴계는 비록 그러하기는 하나 마음을 바로 하기 위해서 문학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면서 적극성을 보였다 미의식은 남명의 '탁홍규풍'과 퇴계의 '은유돈후'로 특징지워진다 물론 남명에게 후자가 없거나 퇴계에게 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문학을 통한 이같은 변별적 미의식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로써 우리는 현실세계에 보다 밀착되어 있는 남명의 문학세계에 대하여 이해하게 된다 남·퇴는 상호 비평을 해주기도 했다 남명은 주로 퇴계의 문체, 즉 今文世體를 문제 삼았고, 퇴계는 주로 남명문학에 나타나는 과격한 言辭나 노장적 기풍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같은 비평은 상대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마련된 것이니 끝까지 균형감과 신뢰성을 잃지 않았다 하겠다

## 5. 研究의 課題

남명이라는 한 작가를 향한 약 20년간의 연구는 그 질량적 수준에서 볼 때 과소평가 될 수 없다 남명이 사회적 실천을 앞세우며 스스로 작가이길 거부하였지만 작가적 역량은 그의 뜻과는 별도로 후세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대인들에 의한 남명문학의 단편적 관심이 80년대에 들어 논리를 갖춘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소개와 모색 그리고 구체적 작품론과 의식의 해명을 기반으로 한 작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적 고민에 의거하여 그 결과물들이 학계에 보고 되어왔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은 바로 그 성과를 연구사적 입장에서 개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 못지 않게 이 방면의 연구자들 앞에 놓인 과제 역시 중요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음 세기의 남명문학에 대한 연구사적 비전은 이 과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그 학문적 실천을 통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연구 경향별 검토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첫째, 장르 변별적 연구의 영역확대 및 작품의 형식미학에 대한 검토이다 장르 변별적 연구는 연구사 초기부터 주목받으며 남명문학 연구 중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다 운문작품은 남명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부와 명, 그리고 국문시가 등으로 이어졌으며, 산문작품은 <유두류록>을 중심으로 <염광론>과 <묘지>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 작품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두면서 정치하게 논의되어야겠

지만 여타의 장르, 즉 56편의 서간문, 5편의 記文, 7편의 발문, 5편의 상소문 등에 대한 독자적인 문학적 접근 또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작품들은 전통적으로 한문학 분야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방법이나 작가적 태도 역시 뚜렷이 제기되어 있으나 여기에 대한 개별 연구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각 작품이 지닌 주제나 내질적인 의미 역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작품이 지닌 형식미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어떻게'에 대한 문제라 하겠는데, 작품의 주요 내용은 거기에 알맞은 일정한 형식미와 함께 전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장르 통합적 연구의 장르간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장르 통합적 연구는 남명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포괄적으로 다루되 각 장르에서 공통인자를 추출하여 그것으로 남명의 작가정신을 탐색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이같은 연구방법이 남명문학 전체에서 단일한 작가정신을 찾아내는 데는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개별 장르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모면하기 어렵다. 즉 한 작가가 시문학 등 운문으로 자신의 뜻을 형상화하는 것과 기행문 등 산문으로 자신의 뜻을 기술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의 이러함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각 장르의 이질성에 주목하되 다른 한편으로 각 장르의 동질성을 분석하여 그 유기적 관계를 밀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명 전승 연구의 역사성과 문학성에 대한 검토이다.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에 대한 탐구는 이 분야 연구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성격이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전승인 실록 및 실기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문학적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설화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커다란 문제로 남아있다. 즉 야담계 일화까지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적·허구적·산문적이라는 설화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전제로 하여 설화에 나타난 역사성과 문학성을 심도 있게 따질 때 남명 전승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남명의 창작작품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남명 이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비교문학적 측면의 정치하고 본격적인 검토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화담 및 퇴계문학과 남명문학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내거나, 남명의 시운을 중국의 시운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찾아내는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이는 다른 작가들과 변별되는 남명문학의 독자성을 찾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접 학문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컨대 남명학과와 화담학과와 학풍을 史學的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가 최근 신병주에 의해 진행되었는데<sup>21)</sup> 이같은 역사학계의 성과는 비교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문학과와 비교 역시 요청된다 남명이 좌구명이나 유종원의 글을 좋아하였다고 거듭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받고 있으며 남명이 이를 어떻게 자기화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남명의 개성적 문체는 이로써 해명될 것으로 본다

이밖에 남명문학의 특성이 남명학과와 문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작업은 남명학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역사적 시각에서 마련된 남명학과와 전체적인 지형도는 이상필의 <남명학과와 형성과 전개><sup>22)</sup>라는 논문을 통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여기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남명문인에 대한 개별연구, 이를 기반으로 한 남명학과에 대한 문학적 측면에서의 전개양상을 다시 따지는 것은 보다 큰 남명문학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퇴계 및 퇴계학과를 아우르는 영남문학에 대한 연구, 율곡 및 기호학과를 아우르는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체계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연구가 선행될 때 한국 사립과 문학사 안에서의 남명 혹은 남명학과가 지닌 상상력의 구도는 그 위상과 특성이 일정한 영역확보와 함께 보다 진전된 의미로 우리 앞에 제시될 것이다

### □ 남명문학 연구논저 목록 □

- 01) 李東英(1981), <江右詩歌研究序說>, 《陶南學報》4, 陶南學會
- 02) 鄭景柱(1982), <朝鮮中期 處士文學의 傾向>, 《釜山漢文學研究》2, 釜山漢文學會
- 03) 金麗石(1983), <南冥 漢詩文學 研究>, 慶北大 教育學碩士論文
- 04) 徐元燮·李鴻鎮(1983), <南冥 曹植의 生涯와 文學>, 《韓國의 哲學》11, 慶北大 退溪研究所
- 05) 李東英(1983), <曹南冥時調의 作者存疑>, 《崔東元教授華甲紀念論叢》, 同刊行委員會
- 06) 權正浩(1984), <曹南冥의 生涯와 文學思想>, 《晉州文化》5, 晉州敎大 晉州文化圈研究所

21) 申炳周(1999), <朝鮮中期 處士型 士林的 學風 研究 -南冥學派와 花潭學派를 중심으로->,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22) 李相弼(1998) <南冥學派의 形成과 展開>, 高麗大 博士學位論文

- 07) 金周漢(1984), 〈退溪와 南冥의 文學批評〉, 《嶺大文化》17, 嶺南大
- 08) 李河石(1984), 〈맑은 지킴과 탁한 감춤〉, 《嶺大文化》17, 嶺南大
- 09) 全炳允(1984), 〈南冥의 思想과 文學研究〉, 啓明大 教育學碩士論文
- 10) 李商元(1988), 〈南冥 曹植에 關한 野乘의 研究〉, 《南冥學研究論叢》1, 南冥學研究院
- 11) 李在翼(1988), 〈遊頭流錄에 나타난 曹植의 自然觀〉, 《語文教育論集》10, 釜山大 國語教育科
- 12) 許捲侏(1988), 〈南冥詩에 나타난 救世精神〉, 《南冥學研究論叢》1, 南冥學研究院
- 13) 楊熙喆(1989), 〈南冥 曹植의 「民巖賦」 研究〉, 《伽羅文化》7, 慶南大 伽羅文化研究所
- 14) 尹柱弼(1990), 〈朝鮮前期 方外人文學에 關한 當代人的 認識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博士學位論文
- 15) 李相弼(1990), 〈南冥의 「民巖賦」에 대하여〉, 《漢文學論集》8, 檀國漢文學會
- 16) 金知燁(1991), 〈南冥 曹植의 賦에 關한 研究〉, 嶺南大 教育學碩士論文
- 17) 李東歆(1991), 〈曹南冥의 精神構圖〉, 《南冥學研究》1,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18) 金忠烈(1992), 〈詩文을 통해 본 南冥의 思想〉, 《南冥學研究論叢》2, 南冥學研究院
- 19) 鄭羽格(1992), 〈南冥文學의 敬義思想 表出方法과 作家意識〉, 慶北大 碩士學位論文
- 20) 鄭羽格(1993), 〈天命問題와 關聯한 南冥의 現實主義的 世界觀〉, 《南冥學研究》3,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21) 鄭羽格(1994), 〈南冥의 「遊頭流錄」에 나타난 記錄性과 文學性〉, 《南冥學研究》4,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22) 金命壽(1995), 〈南冥의 旅遊詩 小考〉, 《韓國漢文學研究》18, 韓國漢文學會
- 23) 李政喜(1995), 〈頭流山 遊覽錄에 나타난 嶺南士林의 精神世界〉, 慶尙大 教育學碩士論文
- 24) 李鍾燦(1995), 〈正士的 氣質의 南冥詩文〉, 《東方漢文學》11, 東方漢文學會
- 25) 張源哲(1995), 〈南冥詩 世界の 한 局面〉, 《南冥學研究》5,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26) 鄭羽格(1995), 〈「嚴光論」의 構造를 통해 본 南冥의 批判精神〉, 《東方漢文

- 學》11, 東方漢文學會
- 27) 崔錫起(1995), 〈南冥의 山水遊覽에 대하여〉, 《南冥學研究》5,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28) 鄭羽洛(1996), 〈南冥文學에서의 現實主義 形成背景에 관한 研究〉, 《韓國의 哲學》24, 慶北大 退溪研究所
- 29) 曹丘鎬(1996), 〈小說文學에 나타난 南冥의 人間像〉, 《南冥學研究論叢》4, 南冥學研究院
- 30) 劉廣和(1997), 〈南冥·松亭詩韻考〉(金德煥 譯), 《南冥學研究論叢》5, 南冥學研究院
- 31) 윤주필(1997), 〈설화에 나타난 道學者像-남명 조식 전승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7, 慶尙大 南冥學研究所
- 32) 鄭羽洛(1997), 〈南冥의 事物接近에 관한 理論과 그 文學的 形象化의 一局面〉, 《南冥學研究論叢》5, 南冥學研究院
- 33) 鄭羽洛(1997), 〈南冥文學의 意味表出樣相과 現實主義的 性格 研究〉, 慶北大 博士學位論文
- 34) 洪性熙(1997), 〈南冥 曹植의 作家意識 研究-敬義精神과 老莊的 趣向을 중심으로〉, 慶熙大 教育學碩士論文
- 35) Sonja Haußler(1997), 〈南冥 曹植의 墓誌〉, 《南冥學研究論叢》5, 南冥學研究院
- 36) 權鎬鐘(1998), 〈南冥 曹植詩의 隱逸心理 管窺〉, 《南冥學研究論叢》6, 南冥學研究院
- 37) 鄭景柱(1998), 〈南冥詩의 修養論의 意味〉, 《南冥學研究院報》6, 南冥學釜山研究院
- 38) 李商元(1998), 〈南冥 撰 銘文의 意味分析〉, 《南冥學研究論叢》6, 南冥學研究院
- 39) 정우락(1998),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 40) 金一 根(1999), 〈曹南冥의 國文詩歌에 대한 深層研究-頭流山歌의 作者와 定本考〉, 《南冥學研究論叢》7, 南冥學研究院
- 41) 王培源·金德煥(1999), 〈南冥先生詩說略〉, 《南冥學研究論叢》7, 南冥學研究院
- 42) 鄭羽洛(1999), 〈說話에 나타난 南冥形象의 樣相과 意味(1)〉, 《南冥學研究論叢》7, 南冥學研究院